

이흥재의 세상만사

임은 까딱 않는데 파도야 어찌란 말이나



논설고문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가 40여 일의 단식을 끝냈다. 단식을 말리러 갔다가 오히려 주저앉았던 문재인 의원의 단식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촉발된 국민 동조 단식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군사독재시절도 아닌데 이 어인 일인가.

단식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사실 우리 배달민족은 단식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달 환웅(桓雄)이 웅족(熊族)과 호족(虎族)의 두 여인에게 속과 마늘만을 주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시련을 겪게 했는 바, 그 중 웅족 여인이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계율을 지켜 의용(義勇: 자태)을 얻었다니 말이다.

항일운동 때도 우국지사들의 단식이 있었다. 면암 최익현(1833년~1906)은 1905년 일본에 의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노구(74세)를 이끌고 의병을 일으켰다가 일본군에 체포돼 대마도로 압송됐다. 단식에 들어간 그는 일본군이 주는 어떤 음식도 거절했다. 심지어 입금이 보낸 마실 물도 거절하고 선비로서의 죽음을 택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 무슨 낯으로 나라의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단식 하면 우리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떠올린다. 1983년 가택연금 등으로 정치활동

이 금지되었던 YS는 23일 동안 단식을 감행함으로써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DJ는 1990년 13일간의 단식을 통해 보수대연합의 내각제 개헌 의도를 막아 내고 지방자치제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

잊혀진 기억이지만 놀라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28일 동안이나 굶은 적이 있다. 1995년 내란 혐의로 구속된 그는 가소롭게도 구속에 항의한다며 단식을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 단식하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수저를 들었다고 한다. '28일 단식'은 현재 정치인 최장 단식 기록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군사독재의 당사자가 그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너도나도 곡기를 끊는다는데

1970년대와 1980년대 암울했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폭압적인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투쟁으로 단식을 선택했다. 그들은 현실정치에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단식을 통해 독재에 맞섰다.

그러다 끝내 숨진 이도 있다. 1980년 전남

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박관현 씨는 40일간의 옥중단식 끝에 29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광주교도소에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다 그해 10월 12일 새벽, 피를 토하며 죽었다. 하지만 그의 단식을 둘러싸고 제기된 폭력과 고문 등 죽음의 실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묻혀 버렸다.

그로부터 30년도 더 지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단식투쟁이 사라지지는커녕 더욱 확산되고 있으니 이 어인 일이나 말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까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나서고 있으니.(현재 2만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식을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집계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과 SNS에서는 김영오 씨의 단식을 놓고 각종 루머와 댓글 등 악의적 인신공격이 판을 치기도 했다. 아무리 자신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개인사를 들춰내면서까지 폄하하다니 해도 너무 했다.

어찌 됐든 단식이 너무 흔해져 보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측면도 없지 않다. 일부 정치인들은 오로지 '보여주기' 차원에서 단식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문재인 의원의 단식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

이 64%나 됐다.(8월 26~28일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

그러니 단식의 성과도 미미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엔 전혀 진전이 없다. 갈등과 대립을 풀어 내야 할 정치권은 물에 잠겨 버린 세월호처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던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오불관인(吾不關焉)의 자세를 견지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차마 속으로 숨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돼 장외로 나갔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자비(?)를 베풀어 주기만을 기다리는 한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임은 물같이 까딱 않는데 파도야 어찌란 말이나)

세월호 정국에 발이 묶여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할 지도 벌써 넉 달이 넘었다. 5월 초 이완구·박영선 두 여야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처리된 유일한 안건이 세월호 국정조사였다. 이 국정조사마저 90일을 허송한 끝에 막 면서까지 폄하하다니 해도 너무 했다.

이제 야당이 가야 할 길은 한 가지 뿐이다.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세월호 유족이나 시민단체 등이 장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의회정치의 모습이니까.

다들 '나 몰라라'에 세월만 간다

물론 아무 소득도 없이 국회로 돌아가는 게 머쓱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할 텐데 누가 하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하는 수밖에 없다. 협상과 재협상에서 너무 쉽게 여당에 합의를 해 준 박영선 원내대표가 풀어야 한다. 그 실마리를 푸는 길은 미련 없이 원내대표직을 내던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돌고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야당의 앞날은 암담할 뿐이다. 마침 황주홍 의원 등 중도·온건 성향 의원 20여 명이 잇따라 국회 등원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그레 장외투쟁으로는 안 된다. 들어가서 싸워라.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지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추석이 내일모레 아닌가.(오늘은 바람이 불고 나의 마음은 울고 있다)

자폐·근육병·뇌성마비... 간병의 고충 '토닥토닥' 치유의 1박2일

광주시 중증장애인 가족 초청 신안 증도 '힐링캠프'

동병상련 35명 가슴 속 고민 나누고 간병 노하우 교환 참가자 "같은 아픔 그 자체로 위안...새로운 가족 만나"

박성순(여·41·광주시 북구 오치동)씨의 인생은 200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박씨는 23살에 첫 아들 장효성(18)군을 낳은 뒤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아들이 9살이 되던 2005년 근육병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상 세상과 단절됐다.

박씨는 이후 하지마비와 함께 합병증으로 심장 근육병까지 얻은 아들 곁을 한시도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손가락과 얼굴의 움직임만 가능한 효성군에게 언제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하루 24시간 내내 곁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남들은 여름이면 휴가를 떠나고, 추석 명절이면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박씨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다.

올해로 75세 동갑내기인 김영곤·탁영임 부부도 50년이 넘도록 아들 경수(54)씨를 병간호하고 있다.

뇌성마비로 태어난 경수씨는 거동 자체가 불가능해 부부 중 한 명이 항상 주변에 머물러야 한다. 모두가 잠든 한밤 중에도 누운 방향을 정면, 좌, 우 등으로 수시로 바꿔줘야 하는 탓에 노부부는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다.

자폐성 장애를 안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돌보고 있는 박정선(여·47)도 아들이 생후 29개월째부터 자폐성향을 보이면서 발이 묶였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음식을 해먹겠다며 가스레인지 위에 플라스틱 통을 올려놓고 불을 켜기가 일쑤인데다, 순식간에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실종신고를 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들처럼 희귀 난치성 질환 자녀를 둔 이들의 소박한 꿈 중 하나는 잠시 힘든 일상을 잊고 1박 2일 정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꿈으로만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광주시와 (사)광주 북구장애인복지회 등이 지난 달 29~30일 장애인 단체, 지역기업 등과 연계해 광주 지역 희귀난치병, 장애인 가족 35명을 선정할 뒤 신안 증도 옐도라도 휴양지에서 힐링캠프를 진행한 것이다.

처음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순하게 이들의 소박한 꿈을 현실화하자는 의미였는데, 그 효과는 예상외로 컸다고 한다.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뒀던 고민과 설움을 털어놓으면서 가족보다 더 가족같은 사이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의형제, 의남매 등으로 가족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이들도 상당수로, 내친김에 이번 추석부터 잠시라도 가족처럼 모여보자는 의기투합하는 가족까지 생겨났다.

힐링캠프 참가자 중 가장 고령인 김영곤(75)씨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들끼리 모이다 보니,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다"면서 "서로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다 보니 그냥 마음이 통하고, 서로 불쌍해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면서 사실



1박 2일 힐링캠프 참가를 위해 지난 달 29일 광주시청 광장에 모인 희귀난치병 환자 가족들이 윤장현 광주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상한 가족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순씨도 힐링캠프에서 일부 참가자와들과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간병 노하우 등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박씨는 "10여년만에 본 바다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줬다. 비슷한 처지의 이들과 만난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 듯하다"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든든한 가족까지 얻은 듯 해 가슴 한 쪽이 따스해진 기분"이라고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정밀 미세 레이저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눈모양빌딩

바탕광주안과

*부작용: 수술 초기 이안 빛반경,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기준 제081110-종-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세션 30여종)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리, 써미지, 웨나트 복합치료
② 에드용 레이저: 스무스빔, 아이클, 브이빔, 프락셀
③ 세오 레이저: 쉐닝맥스, 디오오유드
④ 피부 미백: 쉐닝맥스, 쉐닝맥스, 쉐닝맥스
⑤ 주름·출혈: 프락셀, 울트라펄스, 프락셀, 프락셀
⑥ 안티에이징: 울트라펄스, 프락셀, 프락셀
⑦ 미인: 네오모토, 지방흡입

진료시간
상무점: 월~일: AM 9:30 ~ PM 7:00
· 토요일: AM 9:30 ~ PM 5:00
· 연휴(연간휴일): AM 9:30 ~ PM 8:30
· 점심: PM 1:00 ~ PM 2:00
· 저녁: AM 7:00 ~ PM 8:30
· 토요일: AM 9:00 ~ PM 4:00
*월~일: 연휴(연간휴일) 40여명 진료 가능 (주말, 연휴 제외)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아병원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윤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